



설문조사를 통한 일본의 은퇴 전후 생활 변화

이선주 연구원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는 정년퇴직 전후의 남녀를 대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퇴직전후 생활 및 의식변화, 퇴직 후 원하는 생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생활비 부족, 체력저하,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정년 퇴직 전후 사람들 중 70%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정년퇴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은퇴 후 의식 및 생활변화에서는 장기근속의 성취감, 자신의 생활을 되찾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은퇴 이후에는 취미와 체력유지를 위한 활동과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큰 비중을 차지함

■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는 정년퇴직 전후의 남녀를 대상으로 미래의 불안감, 정년퇴직 전후 생활 및 의식변화, 정년퇴직 후 바라는 생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⁴⁾

■ 조사결과 정년퇴직 전후 사람들 중 70%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생활비 부족, 체력저하, 고용불안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년퇴직 전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삶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70% 정도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30%는 특별히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함
 -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50대 후반의 남자는 72%로 60대 남자의 65.6%보다 높게 나타남
- 미래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 “생활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40%로 소득측면에서의 불안감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주요인임
 - “가능한 오래 일하고 싶지만, 체력저하와 고용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남녀 모두 20% 정도를 차지함
 - 특히 여성이 “최대한 오래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함

4) 的場 康子(2018, 2, 21), 定年退職前後の生活の変化,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표 1〉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성별, 연령별)

(단위: %)

구분		생활비 부족	체력저하	고용불안	사회적 고립	기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음
남자	50대 후반	45.0	10.5	8.0	8.5	1.0	27.0
	60대	42.0	13.7	4.3	4.7	1.0	34.3
여자	50대 후반	41.0	16.0	7.0	9.0	1.0	26.0
	60대	38.7	15.0	8.3	8.0	2.0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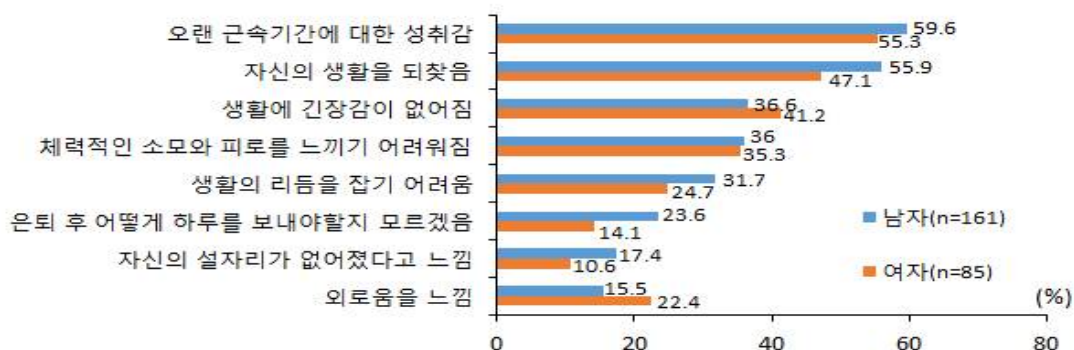
주: 설문조사는 전국의 55~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함. 50대 후반은 근속연수 15년 이상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사람들 남녀 각각 200명이고, 60대는 60세 시점까지 민간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남녀 각각 300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第一生命經濟研究所(2016, 10), 定年に関する意識調査

■ 정년퇴직을 경험한 사람의 퇴직 전후 생활이나 의식 변화에 대한 설문에서는 장기근속의 성취감, 자신의 생활을 되찾음 등 긍정적인 답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생활의 긴장감 저하, 체력적인 소모, 생활 리듬이 깨짐 등과 같은 부정적인 답변이 그 뒤를 이음

- 퇴직 전후 의식 변화와 관련해서는 “오랜 근속기간에 성취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남녀 각각 59.6%,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신다운 생활을 되찾았다”는 항목이 남녀 각각 55.9%, 47.1%로 나타남
- 성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난 항목으로 “생활의 리듬을 잡기 어려움”과 “은퇴 후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음”의 경우 남자의 응답률이 높은 반면 “외로움을 느낌”에 대한 응답률은 여성이 높음
 - 남성의 경우 회사 중심으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시간 활용에 서툰 사람이 많고, 여성의 경우 결혼여부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설문조사에서는 정년까지 일한 사람들 중 미혼자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미혼자의 경우 직장 중심으로 사람관계를 구축하는 경향이 있어 퇴직 이후 고독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임

〈그림 1〉 은퇴 전후 생활과 의식의 변화(성별)



자료: 第一生命經濟研究所(2016, 10), 定年に関する意識調査

■ 은퇴 이후 원하는 생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취미와 체력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부모 간병이나 손주 양육 등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녀 모두 “취미활동을 즐기고 싶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 간호 및 케어”, “체력유지를 위한 스포츠 활동” 등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음
- 정년퇴직 이후 개호와 손주 양육 등 가족을 돌보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싶다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간병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녀 모두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배우자의 간병이나 케어를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도 남자 37.1%, 여자 34.6%로 나타남
 - “손주 육아를 돕고 싶다”고 응답한 남자는 42.3%, 여자는 51.6%로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남
- 그 외에 육아가정 지원이나 개호지원 등 지역 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하려는 사람도 남녀 30%로 나타남
 -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개호나 육아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환경문제 등 지역의 과제해결을 위한 인재도 요구될 것임 **kiri**